

1 차원분수계미분방정식의 쇠스랑분지에 관한 연구

김상문, 왕영철

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.

《수학, 물리학, 화학, 생물학과 같은 기초과학부문에서 과학기술발전의 원리적, 방법론적기초를 다져나가면서 세계적인 연구성과들을 내놓아야 합니다.》(《조선로동당 제7차대회에서 한 중앙위원회사업총화보고》 단행본 40페이지)

현실적인 문제들을 모형화하는 대부분의 미분방정식들이 외적요인을 나타내는 보조변수항을 포함하게 되는데 미분방정식의 분지에 관한 이론은 그 보조변수의 변화에 따라서 미분방정식의 풀이가 어떻게 변화되는가를 고찰하며 나아가서 카오스현상을 연구하는 데서 중요하게 쓰이고있다.[1]

따라서 지난 시기 옹근수계미분방정식의 분지와 1차원미분방정식에서 일어나는 안장마디분지, 쇠스랑분지, 안정성교체분지에 대한 연구[1]가 심화되였다.

보통 옹근수계도함수 및 중적분을 복소수계까지 확장한것을 그 역사적유래와 불려온 습관에 따라 분수계도함수 및 분수계적분이라고 부르며 분수계도함수와 적분이 들어있는 분수계미분방정식과 분수계적분방정식이 활발히 연구[2—13]되고있다.

또한 분수계미분방정식인 경우 평형점의 안정성을 판정하기 위한 여러가지 조건들이 연구되고 특히 편각에 의한 안정성판정조건[4]이 밝혀짐으로써 평형점의 안정성판정에서 전진이 이룩되였다.

현재 구체적인 분수계미분방정식의 분지와 카오스현상은 이론적으로, 수치적으로 연구[5, 12, 13]되고있다.

그러나 일반적인 1차원분수계상미분방정식의 분지에 대한 연구는 심화되지 못하였다.

본문에서는 도함수계수가 $0 < \alpha < 1$ 인 경우 실함수공간에서 분수계미분방정식의 쇠스랑분지출현조건을 연구하였다.

다음과 같은 분수계미분방정식을 고찰하자.

$$(D^\alpha x)(t) = f(x, \mu) \quad (0 < \alpha < 1) \quad (1)$$

여기서 f 는 $\mathbf{R} \times \mathbf{R} \rightarrow \mathbf{R}$ 인 C^3 급넘기기이다.

정리 분수계미분방정식 (1)에서 f 가 다음의 조건을 만족시키면 f 는 $\mu=0$ 에서 쇠스랑분지를 일으킨다.

- ① $f(0, \mu) = 0$
- ② $f_x(0, 0) = 0$
- ③ $f_{xx}(0, 0) = 0$
- ④ $f_\mu(0, 0) = 0$
- ⑤ $f_{xx}(0, 0) \times f_{x\mu}(0, 0) < 0$

증명 함수 $F: \mathbf{R} \times \mathbf{R} \rightarrow \mathbf{R}$ 를

$$F(x, \mu) = \begin{cases} \frac{f(x, \mu)}{x}, & x \neq 0 \\ f_x(0, \mu), & x = 0 \end{cases}$$

과 같이 정의하면 F 는 C^2 급함수이고

$$f(x, \mu) = xF(x, \mu) \quad (x \in \mathbf{R}, \mu \in \mathbf{R}) \quad (2)$$

이다. 따라서

$$\begin{aligned} f_x(x, \mu) &= F(x, \mu) + xF_x(x, \mu) \\ f_{xx}(x, \mu) &= 2F_x(x, \mu) + xF_{xx}(x, \mu) \\ f_{xxx}(x, \mu) &= 3F_{xx}(x, \mu) + xF_{xxx}(x, \mu) \end{aligned}$$

이므로

$$\begin{aligned} f_x(0, 0) &= F(0, 0) \\ f_{xx}(0, 0) &= 2F_x(0, 0) \\ f_{xxx}(0, 0) &= 3F_{xx}(0, 0) \end{aligned}$$

이다. 한편

$$f_{x\mu}(x, \mu) = F_\mu(x, \mu) + F_{x\mu}(x, \mu)x$$

이므로 조건 ④를 고려하면

$$\begin{aligned} f_{x\mu}(0, 0) &= F_\mu(0, 0) \neq 0 \\ F(0, 0) &= f_x(0, 0) = 0 \end{aligned}$$

이 성립한다.

따라서 음함수정리로부터 정수 δ, ε 과 그리고 c^2 급 함수 $\mu: (-\delta, \delta) \rightarrow (-\varepsilon, \varepsilon)$ 이 있어서

$$F(x, \mu(x)) = 0 \quad (3)$$

및 $\mu(0) = 0$ 이 성립한다. 식 (3)의 양변을 x 에 관하여 미분하면

$$F_x(x, \mu(x)) + F_x(x, \mu(x))\mu(x) = 0 \quad (4)$$

이므로

$$\mu'(0) = \frac{F_x(0, 0)}{F_\mu(0, 0)} = -\frac{1}{2} \frac{f_{xx}(0, 0)}{f_{x\mu}(0, 0)} = 0$$

이다. 식 (4)의 양변을 다시 x 에 관해서 미분하면

$$\begin{aligned} F_{xx}(x, \mu(x)) + 2F_{x\mu}(x, \mu(x))\mu'(x) + F_{\mu\mu}(x, \mu(x))[\mu''(x)]^2 + \\ + F_\mu(x, \mu(x))\mu''(x) = 0 \end{aligned}$$

이고 따라서 $x=0$ 으로 놓으면

$$\mu''(0) = -\frac{F_x(0, 0)}{F_\mu(0, 0)} = -\frac{1}{3} \frac{f_{xxx}(0, 0)}{f_{x\mu}(0, 0)} > 0$$

이다. 한편

$$\left. \frac{d}{dx} [f_x(x, \mu(x))] \right|_{x=0} = [f_{xx}(x, \mu(x)) + f_{x\mu}(x, \mu(x))\mu'(x)]_{x=0}$$

이고

$$\begin{aligned} \left. \frac{d^2}{dx^2} [f_x(x, \mu(x))] \right|_{x=0} &= [f_{xxx}(x, \mu(x)) + 2f_{x\mu}(x, \mu(x))\mu'(x) + \\ &+ f_{x\mu}(x, \mu(x))\mu''(x)]_{x=0} = f_{xxx}(0, 0) + f_{x\mu}(0, 0)\mu''(0) = \\ &= \frac{2}{3} f_{xxx}(0, 0) < 0 \end{aligned}$$

이다. 따라서 $x=0$ 은 $f_x(x, \mu(x))$ 의 극대점이고 $f_x(0, 0)=0$ 은 극대값이다.

그러므로 정수 δ 를 충분히 작게 취하면 $f_x(x, \mu(x)) < 0$ ($x \in (-\delta, \delta)$) 이고 한편

$$\left. \frac{d}{d\mu} [f_x(0, \mu)] \right|_{\mu=0} = f_{x\mu}(0, 0) > 0$$

이므로 $f_x(0, \mu)$ 는 $\mu=0$ 에서 μ 에 관하여 증가한다.

그런데 $f_x(0, 0)=0$ 이므로

$$\begin{aligned} f_x(0, \mu) &< 0, \mu \in (-\varepsilon, 0) \\ f_x(0, \mu) &> 0, \mu \in (0, \varepsilon) \end{aligned}$$

인 충분히 작은 정수 ε 이 있다. 따라서

$$\arg(f_x(x, \mu(x))) = \pi > \frac{\alpha\pi}{2} \quad (x \in (-\varepsilon, 0))$$

이므로 편각에 의한 안정성판정조건에 의하여 평형점들은 점근안정하다. 또한

$$\arg(f_x(x, \mu(x))) = 0 < \frac{\alpha\pi}{2} \quad (x \in (0, \varepsilon))$$

이므로 이때 평형점들은 불안정하다. 따라서 f 는 $\mu=0$ 점에서 최스랑분지를 일으킨다.(증명끝)

주의 우의 방정식 (1)에서 $\alpha=1$ 로 놓고 f 가 다음의 조건을 만족시키면 f 는 $\mu=0$ 에서 최스랑분지를 일으킨다.[1]

- ① $f(0, \mu)=0$
- ② $f_x(0, 0)=0$
- ③ $f_{xx}(0, 0)=0$
- ④ $f_\mu(0, 0)=0$
- ⑤ $f_{xxx}(0, 0) \times f_{x\mu}(0, 0) < 0$

참 고 문 헌

- [1] 정우환 등; 미분방정식, 김일성종합대학출판사, 253~269, 주체104(2015).
- [2] 김일성종합대학학보(자연과학), 48, 3, 20, 주체91(2002).
- [3] 김일성종합대학학보(자연과학), 56, 6, 12, 주체99(2010).
- [4] 김철;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과학원통보, 4, 15, 주체97(2008).
- [5] M. S. Abdelouhab et al.; Indian Journal of industrial and applied mathematics, 6, 2, 105, 2015.
- [6] P. Arena et al.; International J. Bifur. Chaos., 8, 7, 1527, 1998.
- [7] S. Das; Functional Fractional Calculus for System Identification and Controls, Springer, 178~218, 2008.
- [8] S. B. Hadid et al.; PanAmer. J. Math., 6, 1, 57, 1996.
- [9] R. Hilfer et al.; FCAA, 12, 3, 299, 2009.
- [10] A. A. Kilbas et al.; Theory and Applications of Fractional Differential Equations, Elsevier, 279~346, 2006.
- [11] H. C. O et al.; Fractional Calculus and Applied Analysis, 17, 1, 79, 2014.
- [12] J. W. Michael et al.; Physica D., 241, 947, 2012.
- [13] M. S. Tavazoei et al.; Physica D., 237, 2628, 2008.

주체107(2018)년 3월 10일 원고접수

Research on Pitch-fork Burcation in One Dimensional Fractional Differential Equation

Kim Sang Mun, Wang Yong Chol

In this paper, we get the sufficient condition for pitch-fork bifurcation in the one dimensional fractional differential equation

$$(D^{\alpha}x)(t) = f(x, \mu) \quad (0 < \alpha < 1)$$

Key words: bifurcation, fractional differential equation, pitch-fork bifurcation